

“인간에 대해 많은 생각 들게 하는 작품”

“관객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젊을 때 황정민의 오이디푸스를 봤는데 견줄 작품이 없다’ 고 얘기할 수 있는 연극을 만들겠습니다.”

배우 황정민은 11일 서울 블루스퀘어 카오스홀에서 진행된 연극 ‘오이디푸스’ 제작발표회에서 이같이 관객들에게 약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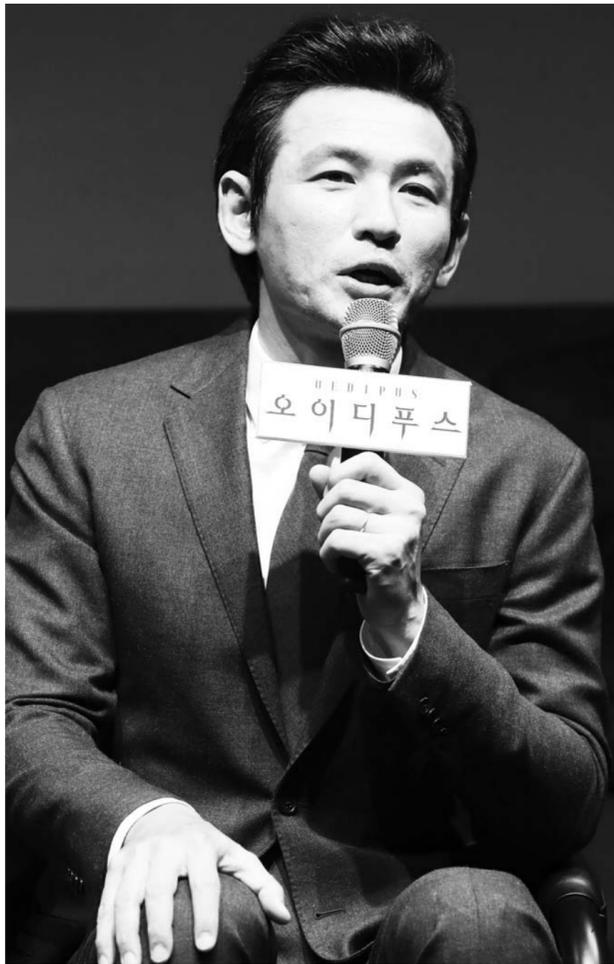
내년 1월 29일부터 2월 24일까지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날 ‘오이디푸스’는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 대표 비극이다.

‘오이디푸스’ 역을 맡은 황정민은 지난 해 10년 만의 연극 복귀작인 ‘리처드 3세’에서 호흡을 맞춘 서재형 연출과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고뇌하는 오이디푸스를 연기하면서 황정민은 인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나는 삶을 살면서 어떤 의문을 가졌기에 배우의 길로 들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내가 좋은 배우인가, 잘하고 있나, 늘 자문자답하곤 합니다. 인간이 운명에 의해 어떻게 좌지우지되고, 그것을 굳건히 딛고 일어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러한 고민이 많은 공부라 합니다.”

서재형은 “보통 운명에 휩쓸려 살아가지는 것이 인생이지만,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인간”이라며 “그 순간을 소박하고 담담하지만 한편



서재형 연출과 제11회 차범석희곡상에 빛나는 한아름 작가 콤비를 비롯해 정승호 무대디자이너, 김영민 조명디자이너, 조윤형 소품디자이너, 김미정 의상디자이너, 김유선 분장디자이너, 김상훈 무대감독 등 평단의 극찬과 흥

배우 황정민 연극 ‘오이디푸스’ 주연 낙점 고대 그리스 3대 비극 작가 소포클레스 작

‘오이디푸스’에서 다시 만났다.

황정민은 이번 연극에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혼인해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신탁을 받아 버려졌지만,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비극적인 운명을 타고난 테베 왕 ‘오이디푸스’로 변신한다.

황정민은 “‘리처드 3세’ 때 작품이 배우 흥행해 좋았던 추억만 남았다”며 “이 때문에 ‘오이디푸스’라는 작품을 연출과 작가 등 같은 제작진이 한다고 했을 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서연출과 재결합한 소감을 밝혔다.

비극 연출의 대가인 서재형 연출은 “‘리처드 3세’를 같이하면서 황정민 배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 기회가 있었다”며 “그때마다 저 배우와 나중에 운명이 허락하면 비극 작품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운명처럼 ‘오이디푸스’를 하게 됐다”고 돌아봤다.

으로는 두껍게 그려보는 것이 연극 ‘오이디푸스’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황정민은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을 할 때, 배우들의 에너지와 관객 에너지가 합쳐진 그 순간 행복해하는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공연과 영화의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만큼 관객들에게 늘 감사하고, 늘 더 잘하고 싶다고 그는 강조한다.

“관객 분들이 공연을 보시면서 ‘정말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제 연기를 보면서 ‘황정민의 연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도 못하겠다’, ‘저 사람의 연기를 보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배우로 살아가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오이디푸스’는 공연제작사 ㈜셀컴퍼니가 ‘해롤드 앤 모드’, ‘로미오와 줄리엣’, ‘리처드3세’에 이어 선보이는 네 번째 작품이다.

가수 낙준, 17일 현역 입대

강원도 22사단 신병교육대대 입소

가수 낙준(본명 박낙준·25)이 17일 현역으로 입대한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낙준이 이날 강원도 고성에 있는 22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소해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현역으로 복무한다고 밝혔다.

낙준은 입대 전 팬들에게 인사하고자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JYP엔터테인먼트 사옥 1층 카페에서 ‘스타라나이트’(Starry Night)란 제목으로 팬미팅을 열었다.

그는 크리스마스 라디오 콘셉트로 꾸민 팬미팅에서 ‘가리워진 길’, ‘땀’, ‘스틸’(Still) 등을 부르고 팬들과 함



께 한 시간을 사연처럼 소개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또 팬미팅에 이어 네이버 브이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에게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오겠다”, “통련하는 가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SBS TV ‘K팝스타 시즌3’에서 ‘버나드박’으로 출연해 우승한 낙준은 지난해 본명에서 따온 ‘낙준’으로 활동명을 교체했다. 지난 10월 싱글음반 ‘스틸...’(Still...)을 내고 활동했다.

박해진 출연 광고 중국서 최초 공개

3부작 드라마타이즈 형식

한류스타 박해진이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령)을 뚫고 중국에서 자신이 출연한 광고를 가장 먼저 선보인다.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는 박해진이 출연한 이스트스킨의 LED 근적외선 샤인마스크 CF가 오는 20일 중국 최대 전자거래 플랫폼 ‘위메이’를 통해 처음 선보인 후 닷새 후부터 전 세계에 공개된다고 11일 밝혔다.

박해진이 주인공으로 나선 이 광고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주제를 녹인 드라마타이즈 형식으로, 총 3부로 제작된다.

박해진이 자신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자 게스트 출연을 앞둔 ‘맛있는 녀석들’의 MC 유민상을 추천, 두 사람이 함께 광고에 출연하게 된 것도 관심을 끈다.

박해진의 광고를 최초로 공개할 위메이는 2010년에 설립된 전자거래 플랫폼으로 가입회원이 1억 5천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플랫폼이다. 특히 최근 하드웨어 스마트 제품 등으로 영역을 확



장해 글로벌 이용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다.

한편, 박해진이 모델로 나선 LED 근적외선 마스크는 진피층까지 근적외선이 침투해 피부 노폐물을 배출하고 영양공급을 촉진하는 빛을 이용한 것으로, 얼굴은 물론 두피까지 관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이장희 전국 콘서트 ‘나 그대에게’ 포크와 록 넘나드는 70년대 아이콘

‘포크계 전설’ 인가수 이장희(71)가 내년 봄 ‘나 그대에게’란 타이틀로 공연을 연다.

11일 홍보사 PRM에 따르면 그는 내년 3월 8~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LG아트센터 무대에 오른다. 이 공연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에 서울에서 여는 콘서트이자 이장희의 두 번째 전국 투어 시작을 알리는 무대다.

콧수염과 통기타가 트레이드마크였던 이장희는 포크와 록을 넘나드는 멜로디, 아름다운 노랫말로 1970년대 젊은 층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콘이다.

그는 번안곡이 주를 이루던 1970년대 포크계에 ‘그건 너’, ‘한잔의 추억’,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등 자작곡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 입지를 굳혔다. 또 김완선 3집의 ‘나 홀로 춤을 추긴 너무 외로워’를 만들고 동아방송 ‘0시의 다이얼’ DJ로 활동하며 밴드 사랑과평화를 발굴해 1집 ‘한동안 땀뻘었지’를 프로듀싱했다.

이번 공연에는 이장희의 오랜 음악 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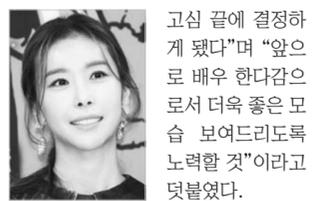
료들이 함께한다. 국내 1세대 세션인 ‘동방의 빛’ 기타리스트 강근식과 베이시스트 조원익을 비롯해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이끄는 함춘호 밴드가 합류한다. 그는 서울 공연에 이어 광주,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팬들과 만난다. /연합뉴스

한은정, 한다감으로 활동명 변경

배우 한은정이 활동명을 한다감으로 변경한다.

소속사 사우스포엔터테인먼트는 10일 “배우 한은정이 예명 한다감으로 활동한다”며 “배우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독특한 이름으로 남고 싶다는 생각과 대중에게 더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에서 오래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더 좋은 배우의 길을 걷고자 당사와 부모님, 한은정이 함께



고심 끝에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 배우 한다감으로서 더욱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갯세븐, 내달 데뷔 5주년 팬미팅 개최

17일부터 일반 예매 시작

그룹 갯세븐이 데뷔 5주년을 앞두고 다음 달 5~6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팬미팅을 연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갯세븐이 ‘갯세븐♥아이 갯세븐 5번째 팬미팅 추구왕을 꿈꾸며 날아라 갯세븐’이라는 타이틀로 팬들과 만난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1월 16일 데뷔한 갯세븐은 ‘하드캐리’, ‘룩’(LOOK), ‘니가 하면’ 등 히트곡을 냈다. 지난 3일 리퍼키지 앨범 ‘〈프레젠티: 유〉엔미에디션’의 타이틀곡 ‘미라클’로 컴백해 8개 지역 아이튠스 송차트 1위를 기록하며 활동 중이다.

일반 예매는 오는 17일부터 멜론티켓에서 한다. /연합뉴스

올해의 예능방송인·코미디언 7년 연속 유재석 선정

개그맨 유재석이 2018년을 빛낸 올해의 예능방송인·코미디언에서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1,700명을 대상으로 올 한해 가장 활약한 예능방송인·코미디언을 두 명까지 설문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갤럽은 정통 코미디 프로그램의 입지가 줄어들고 일반인이나 전문 직업인이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는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코미디언·개그맨’ 분야를 ‘예능방송인·코미디언’으로 확장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유재석은 응답자 33.4%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유재석은 한국갤럽이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인물’ 코미디언·개그맨 분야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010년과 2011년 잠시 2위에 머물렀다가 2012년부터 다시 7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박나래·강호동·이영자·신동엽 등 10위권 랭크

2위는 박나래(27.4%)가 차지했다. 박나래는 MBC TV ‘나 혼자 산다’, MBC에브리원 ‘비디오스타’, tvN ‘잔나투어’ 등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tvN ‘코미디빅리그’ 등 정통 코미디 연기를 계속한

다. 갤럽은 “박나래는 예능 프로그램 주요 수요층인 저연령대 선호도가 높고 특히 10~40대 여성들 선호도가 조사에서는 첫 손에 꼽혀 그의 상승 가도가 앞으로 더 거침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고 분석했다.

3위는 강호동(23.3%)이었다. 그는 유재석과 함께 양대 국민 MC로 군림하다 2011년 잠정 은퇴했다. 복귀한 그는 현재 JTBC ‘아는 형님’과 ‘한끼줍쇼’, tvN ‘신서유기’ 등 비정상과 체널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한다.

4위에는 제2의 전성기를 연 이영자(15.6%)가 올랐다. 그는 MBC TV ‘전지적 참견 시점’, 올림프 ‘밥블레스유’ 등을 통해 맛깔스러운 ‘먹방’(먹는 방송)과 특유의 입담으로 화제 중심에 섰다.

갤럽은 “이영자 프로그램에는 오랜 친구 관계인 여성 예능인들이 동반 출연하거나 자주 소개돼 ‘영자의 전성시대’는 ‘언니들의 전성시대’도 견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10위권에 신동엽, 전현무, 양세형, 이수근, 이경규, 이상민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